

농림수산부장관에 金周浩씨

전두환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농림수산부장관에 김주호 부산직할시장을 임명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부산직할시장에 강태홍 산림청장을 임명·발령했다.

한편 황인성 전임 농림수산부장관은 85년 2월 부임한 후 2년 3개월만에 자리를 떠났다.

김주호 농림수산부장관은 5월 19일 본부회의실에서 거행된 취임사를 통해 “이 중요한 시기에 본인이 농림수산 행정의 중요한 임무를 맡게되어 책임의 막중함을 한없이 느낀다”고 전제, “금년에도 7년연속 풍년농사를 기필코 달성하여. 풍요로운 국민경제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적정생산과 시장정보체제 등의 확립으로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 농림수산물의 가격안정을 기하고 농어민의 시장대응 능력을 제고하여 생산이 소득으로 직결되도록 하겠다”며 농정의 시책방향을 밝혔다.



김주호 농림수산부장관

프 로 필

20년간 농림수산부에서 일한 정통과 농정 관료

김주호 신임 농림수산부장관은 서울대 농대를 졸업, 농촌진흥청 주사로 출발해 농수산부 차관보까지 거치는 등 20년간 농림수산부에서 잔뼈가 굵은 정통 농정관료.

매사에 열심이고 한번 손을 댄 일은 끝을 내고야 마는 공사가 분명하다는 것이 주위의 평.

20년 이후 국보위와 조달청장, 강원·경남지사, 부산시장을 거치는 등 7년간의 의도를 끝내고 농정책임자로 급의환향한 셈이어서 자못 기대가 크다.

운동은 만능이며 부인 김영자 여사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 약 력 ◇

- ▷ 경남 함안출신(54세)
- ▷ 서울대 농대 농경제학과 졸업
- ▷ 농수산부 유통경제국장·식량국장
·농업경제국장·기획관리실장·식량차관보
- ▷ 국보위 농수산분과위원장
- ▷ 조달청장
- ▷ 강원·경남도지사
- ▷ 부산직할시장